

“승리 부르는 조연...팀 패배 막아내겠다”

광주FC 미드필더 이순민

1부리그서도 경쟁력 충분해 더 뛰고 희생하는 선수로 시즌 개막 맞춰 철저히 준비



광주FC의 미드필더 이순민이 2차 동계훈련 캠프가 꾸러진 태극 치앙라이 레오 치앙라이 스타디움에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다.

광주FC의 부주장 이순민이 승리를 부르는 '조연'을 자처했다. 이순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주장 안영규를 도와 부주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주장단으로 광주 우승 질주에 함께 한 이순민은 K리그2 시상식에서 미드필더(중앙) 부문 수상자가 돼 단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민은 "2017년에 입단해서 데뷔하는 데 4년 걸렸고, 5년 만에 데뷔골을 넣었다. 올해 6년째인데 좋은 상 받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특별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특별한 꿈을 꾸고 이루고 싶었다. 성실히 꾸준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꾸준함의 미학을 알려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존경한다"는 특별한 소감을 밝혔다. 1부리그로 돌아가게 된 올 시즌 이순민은 '희생'을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가 다시 1부리그로 복귀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복귀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니고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더 뛰고 더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시상대에서 '꾸준함의 미학'을 이야기했던 이순

민은 올 시즌에도 묵묵히 꾸준히 달릴 계획이다. 이순민은 "감독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안주하려고 하면 끝난 것 같다. 프로 세계는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뒤에서 치고 따라오는 너무나 경쟁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려고 한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계속 이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이 기회가 감사하고, 경기장에 나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1부 무대를 위한 준비도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순민은 "팀 운동이기 때문에 팀이 강해져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팀적으로 강해지려면 개인이 강해야 개인이 모여서 팀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작년에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그 안에서도 부족한 것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도 느낀 게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부터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겠다"며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라는 선수가 1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 시즌 준비는 순조롭다. 1부 리그에 맞는 전술로 업그레이드 중인 광주는 지난 14일 동계훈련 첫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이순민은 오른쪽으로 골대를 갈랐다. 이순민은 "골을 넣는 건 항상 좋다. 항상 좋고 짜릿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전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몸 상태나 이런 것도 개막전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잘한 건 계속 이어가고 못한 것에 대해서 복기하는 등 시즌에 들어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들뜨지 않고 준비 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엄청 특별하고 골을 많이 넣고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는 아니다.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해도 패배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 부분을 해낸다면 앞에서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힘이 될 것이다"고 팀 승리를 위한 숨은 주역을 다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김민재·황희찬 2022 AFC 올해의 팀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선정

손흥민(31·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나폴리·이상 27)가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IFFFHS) 선정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IFFFHS는 대륙별로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추려 '올해의 팀'을 발표하고 있는데, 15일(현지시간) '2022 AFC 올해의 팀'에 오른 선수 1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3-4-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정됐다. 그는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을 폭발하며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태극마크를 달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서기도 했다. 함께 한국의 월드컵 16강을 이끈 황희찬은 '올해의 팀' 2선에 배치됐다. 2021년 8월 잉글랜드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은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며 다소 주춤했지만,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2-1 역전승을 만드는 결정골을 책임지며 존재감을 보였다. 지난해 이탈리아 나폴리에 입단한 뒤 주축으로 자리 잡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는 수비진에 포함됐다. 김민재는 지난해 세리에A '9월의 선수'로 뽑히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았고, 팀의 선두 질주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다. 올해의 팀 11명 중에서는 일본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다. 가마다 다이치(프랑크푸르트)와 미나미미노 다쿠미(모나코)가 미드필더진에 포함됐고, 샌더백 요시다 마야(살게), 골키퍼 곤다 슈이치(시미즈 S-펄스)도 포함됐다. 이 외에 이란 공격수 메디 타레미(포르투),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수 살림 다우사리와 미드필더 살만 파라즈(이상 알힐랄), 호주 수비수 야지즈 베이시(던디)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16·17일 현대건설 아산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KIA 타이거즈 임직원과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임직원·선수단 워크숍 '우승' 다짐

KIA 타이거즈가 전 임직원과 선수단이 참가한 워크숍을 통해 '우승'을 다짐했다. KIA는 16-17일 이틀간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건설 아산연수원에서 전 임직원과 선수단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임직원과 선수단이 올 시즌 우승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해외 훈련 중인 선수를 제외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해 열의를 보였다. 워크숍은 조직의 활성화와 팀워크 강화에 특화

된 진단 프로그램인 버크만 진단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선수단 주장 김선빈은 "평소 프런트 직원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친분을 다지고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모든 구성원이 이번 시즌 우

승이라는 한 뜻을 모으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워크숍을 주최한 최준영 대표이사는 "구단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선수단과 임직원 모두가 한 뜻을 모아 팬 여러분께 멋진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3 시즌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맙습니다”

베트남 팬들, 박항서 감독에 감사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마지막 경기인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스비시킵 결승전을 마치고 베트남 국민들은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찬사를 쏟아냈다.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에 부임한 박 감독은 이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부터 줄곧 '박항서 신화'를 써왔다. 그는 베트남 사상 첫 아시안게임 4강 진출(2018년),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구 우승(2019년),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등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반열에 올랐다.

아쉽게도 그는 이날 말 대표팀 감독직 계약 종료로 앞두고 벌어진 이날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에 패배해 준우승에 그쳤다. 당초 박 감독이 고별전을 우승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했던 많은 베트남 국민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졌지만 지난 5년여간 대표팀을 이끌면서 '매직'을 보여준 박 감독의 업적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축구 팬인 응우옌 타인 후엔(36)은 "박 감독이 취임해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동남아 축구계의 중심으로 이동시켰다"면서 "그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리더십과 성과는 오랫동안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감독이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를 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시민인 응우옌 하 미(20)는 "마지막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5년간 우리와 함께해준 박 감독에게 고마울 뿐"이라며 "그와 선수들은 베트남 축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양의지 “마지막 국가대표...결과로 보여주겠다”



양의지

WBC 대표팀 주전 포수 국제대회 통산 1할대 타율 '상처'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겠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포수 광주 진흥고 출신 양의지(36·두산 베어스)에게 따라다니는 말감지 않은 평가 가운데 하나는 '국내용'이라는 꼬리표다.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를 통해 태극마크를 단 그는 도쿄올림픽까지 줄곧 대표팀 주전 포수였다. 그러나 국제대회 통산 타율은 0.169(83타수 14안타)에 불과한 단 1개밖에 못 쳤다. 특히 2021년에 치러진 도쿄올림픽은 양의지에겐 상처로 남아 있다. 7경기에서 타율 0.136에 그치며 한국 대표팀의 노메달을 지켜보아야 했다. 양의지의 진짜 가치는 '몸 털을 쓴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포수 능력에 있다.

상대 허를 찌르는 볼 배합과 경기 판세를 읽는 탁월한 안목 덕분에 지금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강철 야구대표팀 감독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주전 포수 양의지에게 수비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임무인 포수 수비에만 전념하면, 오히려 타격까지 풀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 감독은 16일 WBC 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의지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체크했다. 대표팀 마운드에 젊은 투수가 많으니 (리드에 전념하도록) 활용하면서 타석에서는 편한 타순을 줄게 한다"고 말했다. 대표팀 경험이 많지 않은 구창모(NC 다이노스), 김윤식(LG 트윈스), 이의리(KIA 타이거즈), 광빈, 정철원(이상 두산) 등 향후 대표팀 마운드를 짊어질 대들보들을 양의지에게 맡긴 것이다. 이 감독은 "대표팀 주전 포수 양의지는 투수를 잘 끌고 가야 한다. 선수들이 해당 포지션에서 최상의 경기력이 나오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 타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 빅리거 최지만(피츠버그 파이리츠),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에 박병호, 강백호(이상 kt wiz), 최정(SSG 랜더스),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나성범(KIA), 김현수(LG) 등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가 출동했다. 양의지가 하위타선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해결사 노릇을 해줄 선수가 적지 않다. 대신 주전 포수로 미리 벤치에서 정한 경기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야전 사령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감독은 "호주전을 대비해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를 뽑았다. 양의지 선수가 그걸 알고 운영할 거로 생각한다"고 임무를 맡겼다. 양의지는 긴장하지 않았다. "(대표팀에서) 부진했을 때 솔직히 몸이 안 되고 준비를 못한 게 많다. 이번에는 준비 잘해서 결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